



## Report 사회지표 || 2021년 5월 20일

“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”

### 케이스탯 2021년 5월 사회지표

#### ■ 월 정기 지표

- \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: ‘잘못된 방향’, 큰 폭 우세 유지
- \_ 경제 방향성 : 부정평가 우세 여론 여전
- \_ 정부 신뢰도 : ‘신뢰 안한다’ 59%로 지속 우위
- \_ 정부정책 만족도 : 11개월 연속 부정평가 우위
- \_ 정당 호감도 : 마음에 드는 정당 ‘없다’ 74%
- \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: ‘줄어들 것’ 26%
- \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: ‘늘어날 것’ 24%
- \_ 부동산 가격 전망 : ‘지금보다 오를 것’ 우위 지속
- \_ 주식 가격 전망 : ‘지금보다 오를 것’ 39%로 소폭 증가

#### ■ 5월 특별지표 : 한국인 ‘불안 의식’ 진단

- \_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: ’불안하다‘ 70%
- \_ 삶 영역별 불안감, ‘경제적 문제’ 가장 높아
- \_ 수도권, 모든 영역에서 ‘불안감’ 높아
- \_ 여자 18~20대 불안감, 특히 높아

Kstat

<http://www.kstat.co.kr>  
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 
admin@kstat.co.kr ■ 전화 \_ 02\_6188\_6000

## 조사개요

조사기간	2021년 5월 7일(금) ~ 5월 9일(일)
조사방법	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조사기관	케이스탯
표본추출	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표본틀	케이스탯 K-패널
유효표본	총 1,057명
표본오차	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±3.01%p
가중치	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 (2021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)

## 일러두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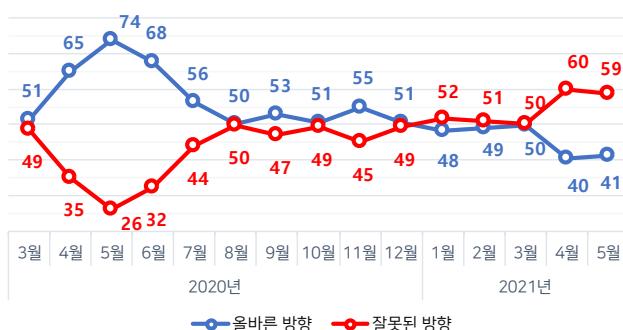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.
-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-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-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
## ▶ 월 정기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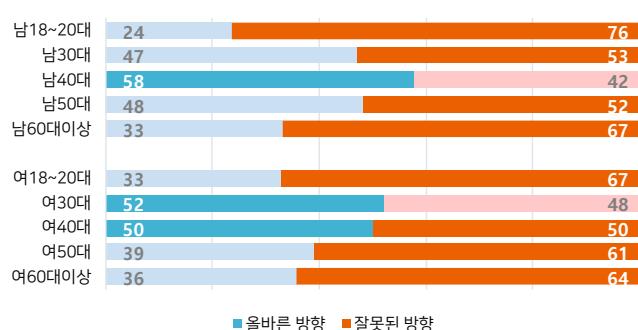
### □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: '잘못된 방향', 큰 폭 우세 유지

-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견은 재·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4월을 기점으로 '잘못된 방향'이 우세한 모습임
  - 2021년 5월 조사결과 '잘못된 방향' 59% vs '올바른 방향' 41%로, 지난 4월 조사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
-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고, '올바른 방향'이 우세한 계층은 △남자 40대 △여자 30대 △호남 △진보층에 그침
  - 여자 40대는 '올바른 방향' 50% vs '잘못된 방향' 50%로 수치가 동일함
-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△남자 18~20대, 남자 60대이상 △여자 18~20대, 여자 60대이상 △TK △보수층 △주부, 학생 △개인이익중시층 등임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(자료:케이스탯, 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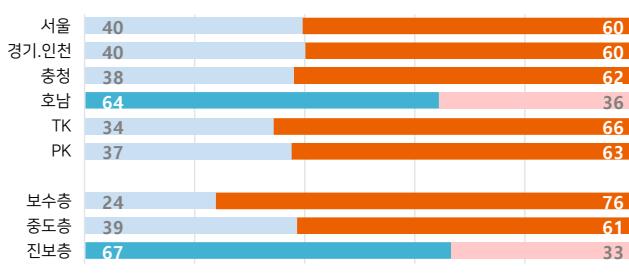


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성/연령별(자료:케이스탯, 단위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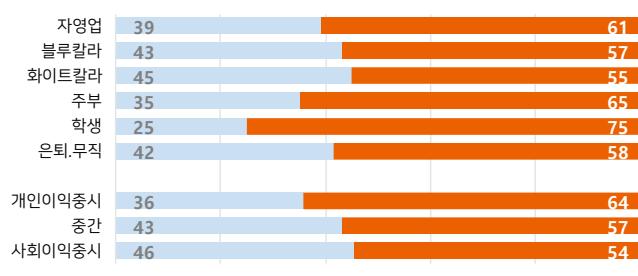
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지역별, 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:%)



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직업별, 이익중시별

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:%)



■ 올바른 방향 ■ 잘못된 방향

■ 올바른 방향 ■ 잘못된 방향

#### 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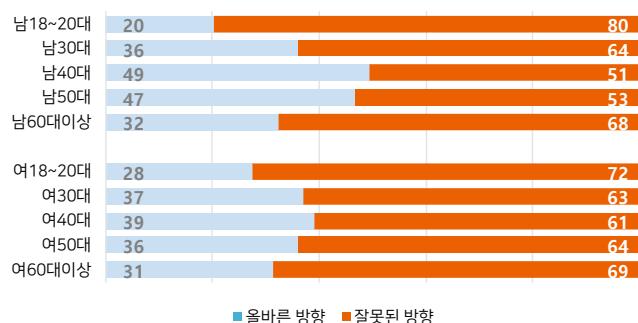
- 4.7 재·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이 '쇄신'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, 국민여론 역시 제자리를 유지한 양상임
  - : 재·보궐선거 직후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'친문'으로 평가받는 윤호중 의원이 당선된 것에서 보듯 여권은 '쇄신'보다 '안정'을 선택함
-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, 불안정한 백신 수급으로 접종 속도가 늦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  - : 5월 16일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 완료 인구비율은 1.8%로 전 세계 4.6%보다 낮음(자료, Our World in Data)
- 5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경우,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

## ▣ 경제 방향성 : 부정평가 우세 여론 여전

-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 평가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 11개월 연속 부정평가 우위가 지속됨
  - 이번 5월 조사에서도 ‘잘못된 방향’이라는 의견이 65%를 기록함
- 거의 모든 계층에서 ‘잘못된 방향’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, ‘올바른 방향’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호남과 진보층에 불과함
  - 호남과 진보층의 의견도 ‘올바른 방향’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지 않음
- ‘잘못된 방향’이라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△남자 18~20대, 남자 60대이상 △여자 18~20대, 여자 60대이상 △충청, PK △보수층, 중도층 △자영업, 주부, 학생 △개인이익중시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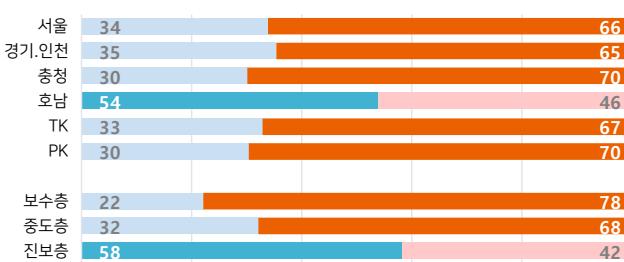


5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성/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 단위:%)



5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지역별, 이념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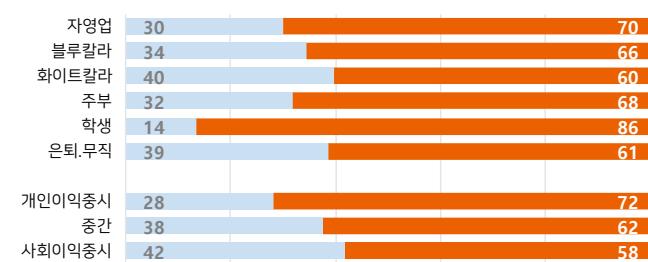
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:%)



■ 올바른 방향 ■ 잘못된 방향

5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직업별, 이익중시별

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:%)



■ 올바른 방향 ■ 잘못된 방향

### 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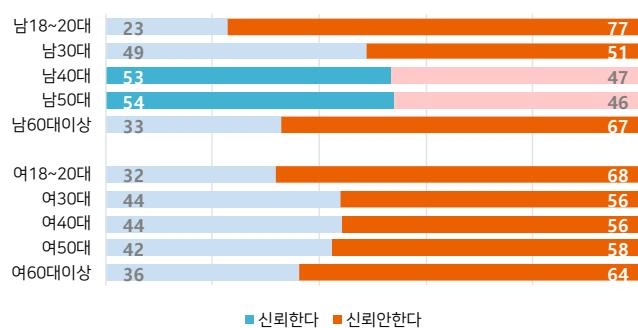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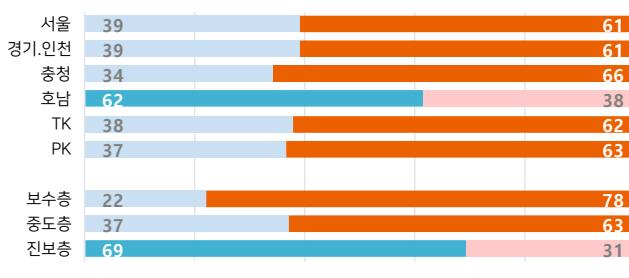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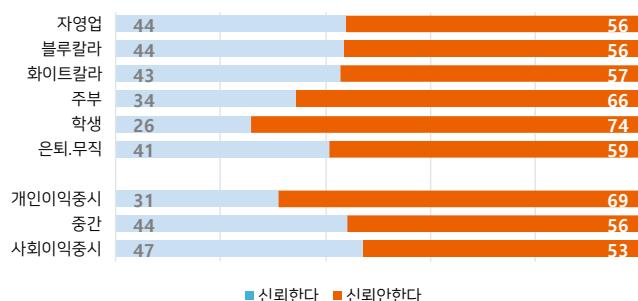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경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
  - : 2020년 경제성장률은 -1.0%로 역성장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선방했으며, 2021년 경제성장률은 11년 만에 4%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
  - :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금융연구원 4.1%, LG경제연구원 4.0%, JP모건 4.6% 등 전반적으로 낙관적임
- 그러나 경제성장이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고,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가 낮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
  - : 국민이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, 이는 경제성장률 개선과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
  - : 최근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, 이는 지난 시기 위축 침체되었던 ‘기저 효과’에 따른 측면이 강함
- 정부가 경제성장을 수치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경제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, 내수경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적 공감은 약하고,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## ▣ 정부 신뢰도 : '신뢰 안한다' 59%로 지속 우위

- 정부 신뢰도는 지난 4월에 비해 소폭 반등해 41%를 기록했으나, '신뢰 안한다'는 의견이 59%로 지속적으로 우위를 나타냄
- 거의 모든 계층에서 정부를 '신뢰 안한다'는 의견이 우세하고, 특히 부정적 의견이 높은 계층은 △남자 18~20대, 남자 60대이상 △여자 18~20대, 여자 60대이상 △충청 △보수층 △주부, 학생 △개인이익 중시층 등임
- 정부를 '신뢰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남자 4050세대 △호남 △진보층에 그침



5월 정부 신뢰도 : 성/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:%)

5월 정부 신뢰도 : 지역별, 이념별  
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:%)5월 정부 신뢰도 : 직업별, 이익중시별  
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:%)

■ 신뢰한다 ■ 신뢰안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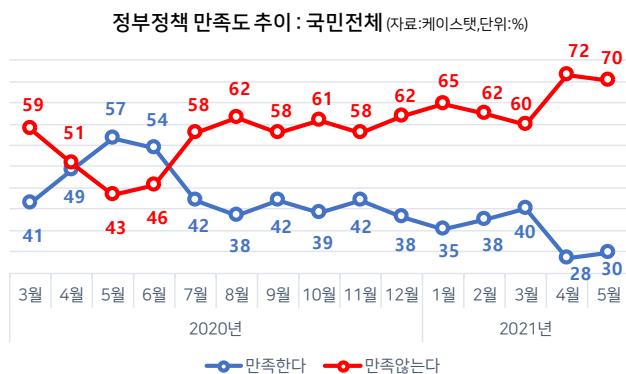
■ 신뢰한다 ■ 신뢰안한다

### 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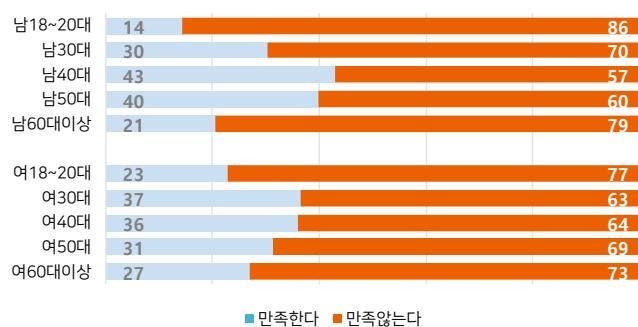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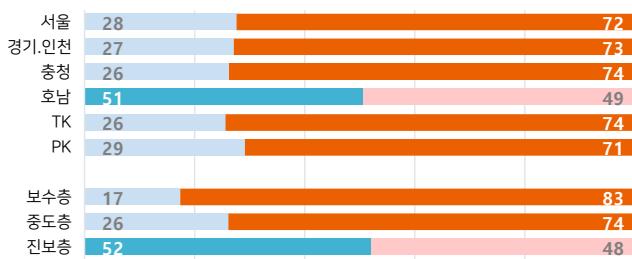
-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, 경제 방향성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계층과 정부를 '신뢰 안한다'는 계층이 동일함 : 성/연령별로는 남녀 18~20대와 남녀 60대 이상으로 이들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정부에 가장 비판적임
- 한편, 낮은 정부 신뢰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: 5월 17일 현재 코로나19 접종 예약률을 살펴보면 정부 기대와 달리 낮은 수준임 : 70~74세 예약률, 58.3% / 65~69세 예약률 49.1% / 60~64세 예약률 29.9%(자료,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)
- 정부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예약률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, 근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: 남녀 60대이상 연령층의 낮은 정부신뢰도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감 및 백신 접종 부작용 사례와 맞물리면서 백신접종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것임

## ▣ 정부정책 만족도 : 11개월 연속 부정평가 우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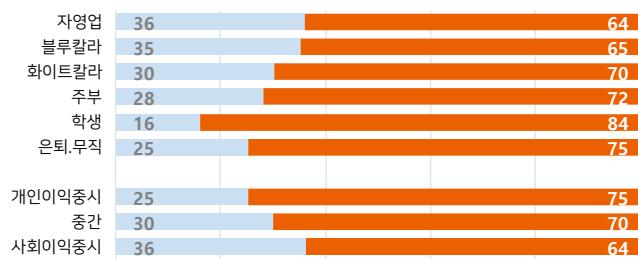
- 정부정책 만족도는 지난 7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‘만족 않는다’는 의견이 우세함
  - 5월 조사에서 ‘만족한다’는 의견은 30%이고, ‘만족 않는다’는 의견은 70%로 나타남
- 거의 모든 계층에서 ‘만족 않는다’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, ‘만족한다’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호남과 진보층에 그침
  - 호남과 진보층의 ‘만족한다’는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51%, 52%로 매우 근소한 우위임
- ‘만족 않는다’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△남자 18~20대, 남자 60대이상 △여자 18~20대, 여자 60대이상 △경기·인천, 충청, TK △보수층, 중도층 △학생, 은퇴·무직자 △개인·이익·중시층 등임



5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성/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 단위:%)

5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지역별, 이념별  
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%)

■ 만족한다 ■ 만족않는다

5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직업별, 이익중시별  
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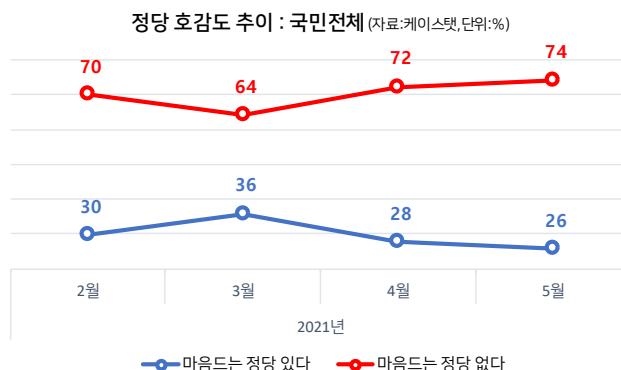
■ 만족한다 ■ 만족않는다

### 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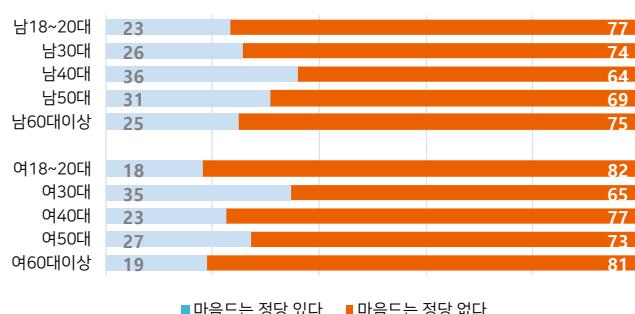
- ☒ 정부정책에 만족하는 계층은 사실상 ‘전무’한 것으로 보이고,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 및 참여도는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됨
- ☒ 여권은 당·정·청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지만, 현 상황에서는 ‘당 주도론’이 부각되면서 정부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계파갈등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됨
  - : 최근 여당의 ‘부동산 보유세 완화’ 흐름에 친문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이 “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, 처방도 영리”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 단적인 예임
- ☒ 특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미래 권력(차기 대권주자)으로의 ‘힘 쏠림’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계파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

## □ 정당 호감도 : 마음에 드는 정당 '없다' 74%

- 마음에 드는 정당, 즉 정당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
  - 5월 조사에서도 마음에 드는 정당이 '있다'는 의견은 26%에 불과하고, '없다'는 의견이 74%를 기록함
- 모든 계층에서 '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'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△여자 18~20대, 여자 60대이상 △충청 △중도층 △주부, 학생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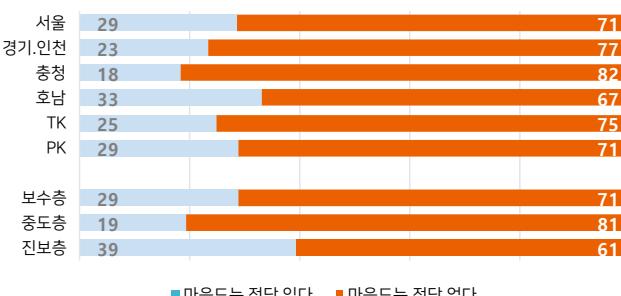


5월 정당 호감도 : 성/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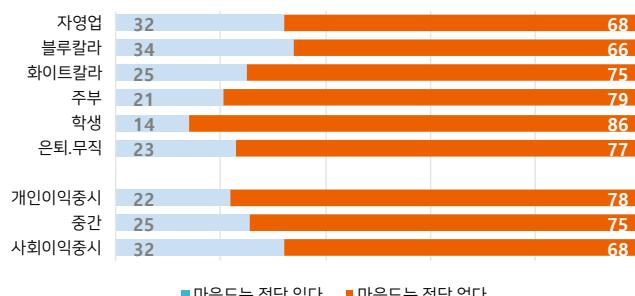
5월 정당 호감도 : 지역별, 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:%)



5월 정당 호감도 : 직업별, 이익증시별

(자료:케이스탯, 2021.05.09조사, 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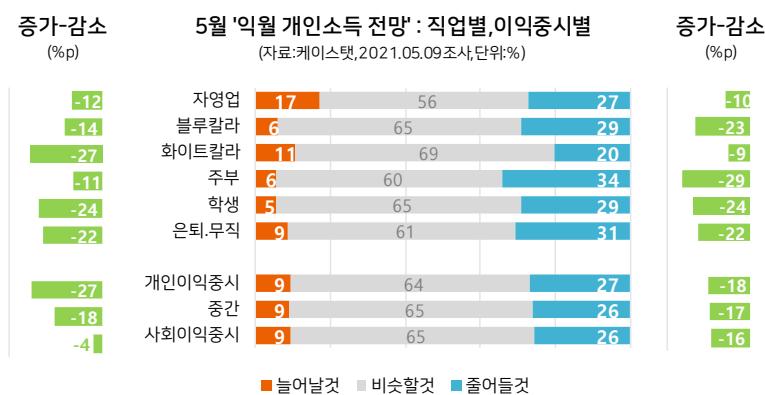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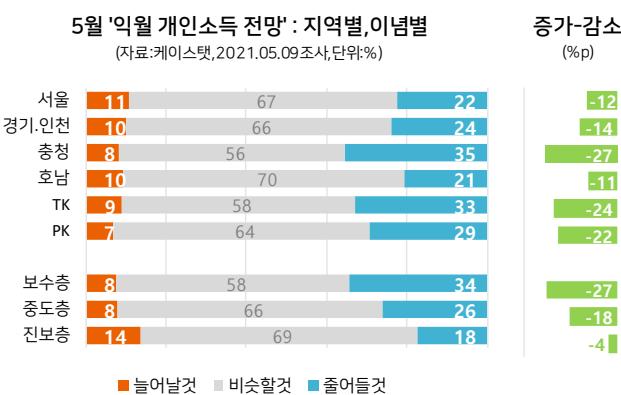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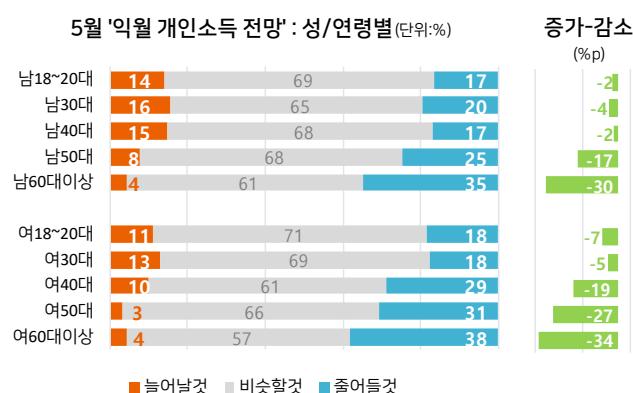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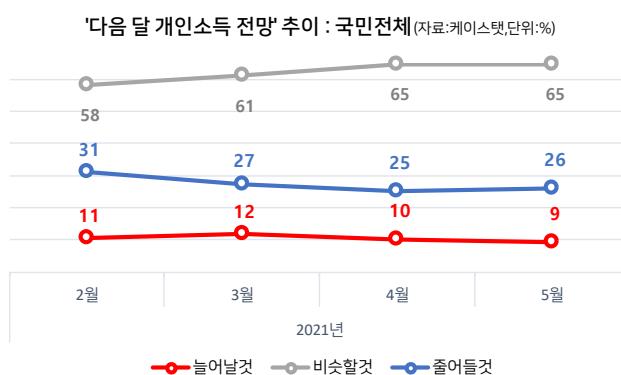
### Kstat Point

- ☒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작동하고 있음
- ☒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,
  - : “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변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” 주장 공감도, 25%
  - : “우리나라 정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” 주장 공감도, 71%

(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3호(2020년 9월24일자)『민주주의와 개인자유 국민의식 분석』 참고)
- ☒ 이렇듯 지금의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종합할 때, 향후 대통령 선거는 ‘새로운 정치’와 ‘미래 비전’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으로 전망됨
  - : 사실 이 두 가지 아젠다는 대통령 선거 시기마다 대두되지만 이를바 ‘진영 대립구도’ 속에 와해되는 경우가 많음
  - : 즉, ‘새로운 정치’와 ‘미래 비전’이 중시되다가도 대선국면이 본격화 되면 ‘보수진영 vs 진보진영’ 간의 대립 속에 각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 지지로 후퇴함(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함)
- ☒ 국민들의 이러한 경향이 오는 대선에서도 반복될 것인지, 아니면 진영대결을 뛰어넘어 ‘새로운 정치’와 ‘미래 비전’을 선택할 것인지 주목되는 지점임

## ▣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: '줄어들 것' 26%

- 국민 다수는 다음 달 자신의 개인 소득이 '지금과 비슷할 것'이라고 생각하고, '늘어날 것'이라는 국민은 9%에 불과함
  - 5월 조사결과 '지금과 비슷할 것'이라는 응답은 65%이고, '줄어들 것' 26%, '늘어날 것' 9% 순으로 조사됨
  - 조사 이후 이러한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음
- '늘어날 것'에서 '줄어들 것'을 뺀 '차이'는 -17%p로 지난 4월보다 소폭(2%p) 증가함
-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'차이'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, 특히 마이너스 폭이 큰 계층은 △ 남자 60대 이상 △여자 5060세대 △충청, TK, PK △보수층 △블루칼라, 주부, 학생, 은퇴.무직자 등임
  - 여자 60대 이상이 -34%p로 가장 폭이 크고, 다음으로 남자 60대 이상이 -30%p로 뒤를 이음
- 상대적으로 '차이'가 작은 계층은 △남자 2040세대 △여자 2030세대 △진보층 △자영업자, 화이트칼라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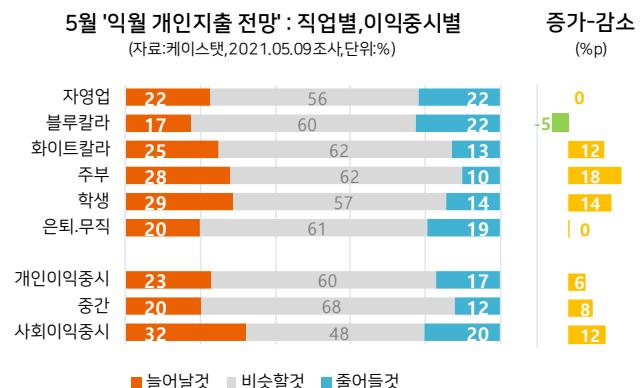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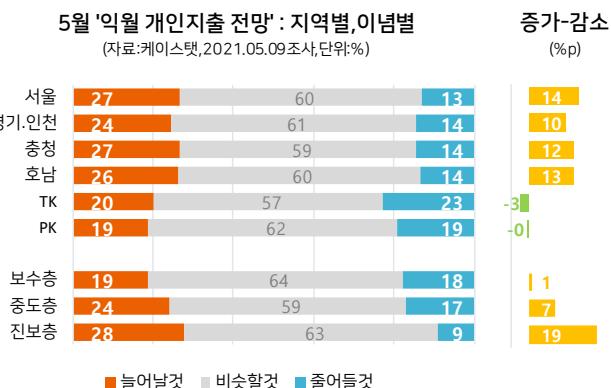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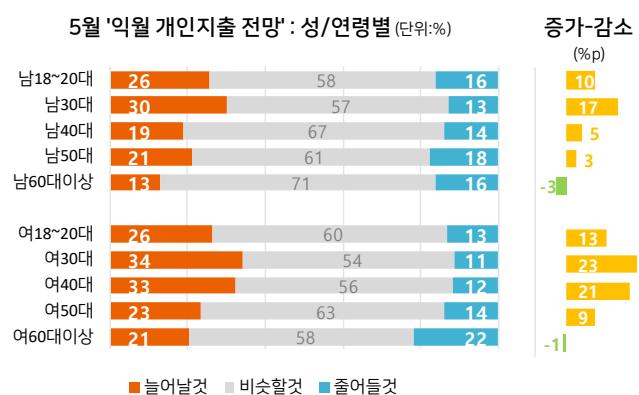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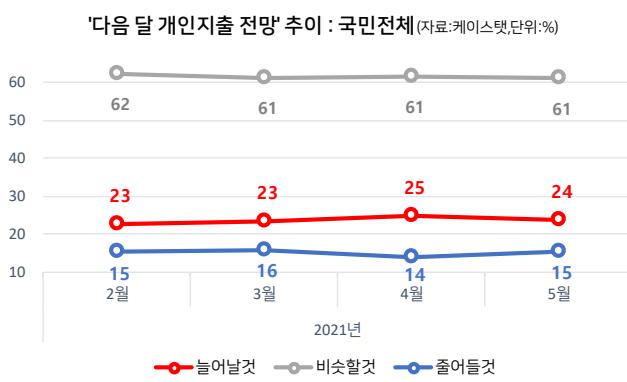


- OECD에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(65세 이상)은 43.4%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(2018년 기준)
  - : 이는 OECD 전체 14.8%의 3배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
-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에 있어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남녀 60대 이상의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노인빈곤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
  - : 통계청 '4월 고용동향'에서 취업자 수가 64만 2천 명 증가하고, 이 중 60대 이상이 73.1%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됨

### Kstat Point

## ▣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: '늘어날 것' 2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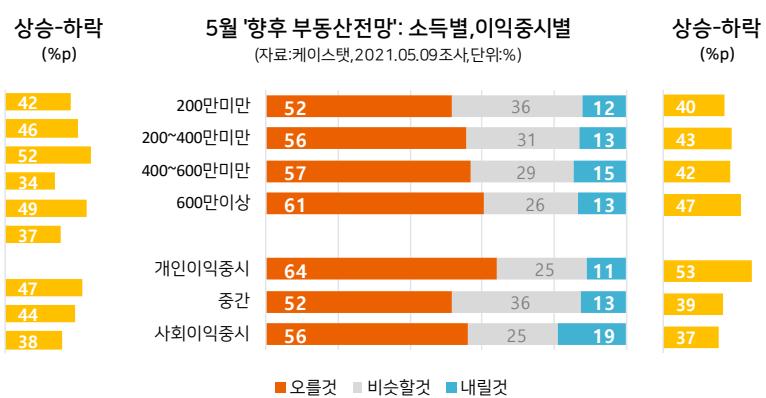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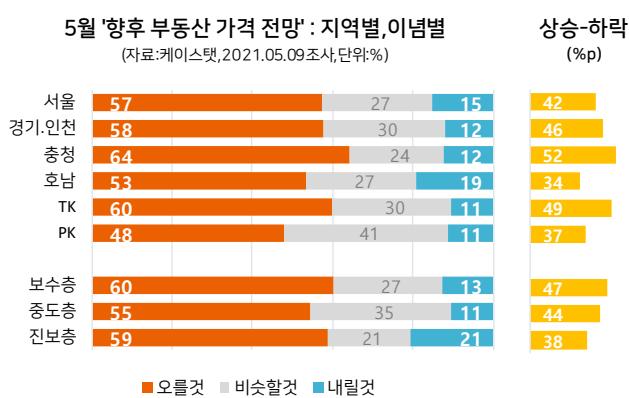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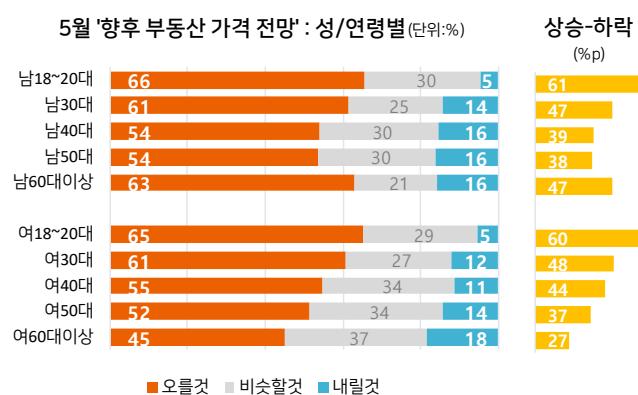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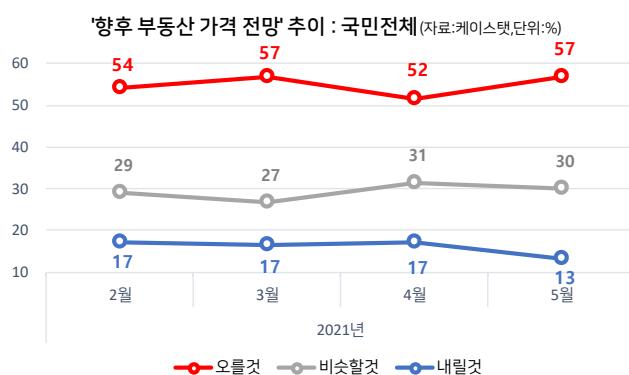
- 국민 다수는 다음 달 개인 지출이 '지금과 비슷할 것'이라고 응답했고, 다음으로 '지금보다 늘어날 것'이라고 응답함
  - '지금과 비슷할 것'이라는 의견은 61%이고, '지금보다 늘어날 것' 24%, '지금보다 줄어들 것' 15% 순으로 조사됨
- 대부분의 계층에서 '차이'(늘어날 것 – 줄어들 것)가 플러스를 보였으며, 특히 플러스 수치가 높은 계층은 △남자 30대 △여자 30~40세대 △진보층 △주부 등임
- '차이'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계층은 △남자 60대이상 △여자 60대이상 △TK, PK △블루칼라 종사자 등임



- 국민 다수는 조사를 시작한 2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음 달 수입과 지출이 '지금과 비슷할 것'이라고 응답함  
: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인 경제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
- 여기에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자도 20%대를 유지하고 있어,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분석됨
- 정부 계획대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경제가 일상으로 회복되는 11월까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

## ▣ 부동산 가격 전망 : '지금보다 오를 것' 우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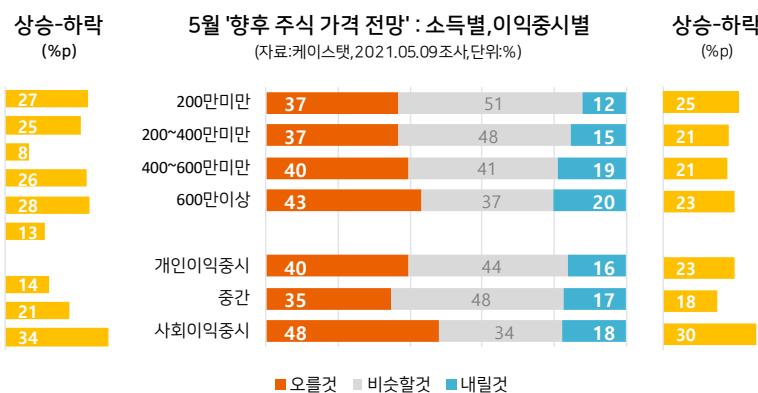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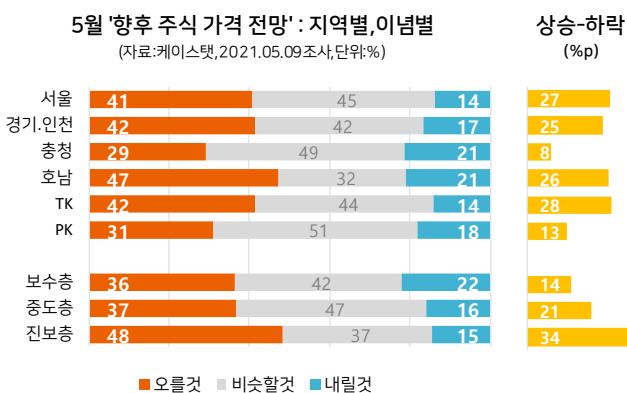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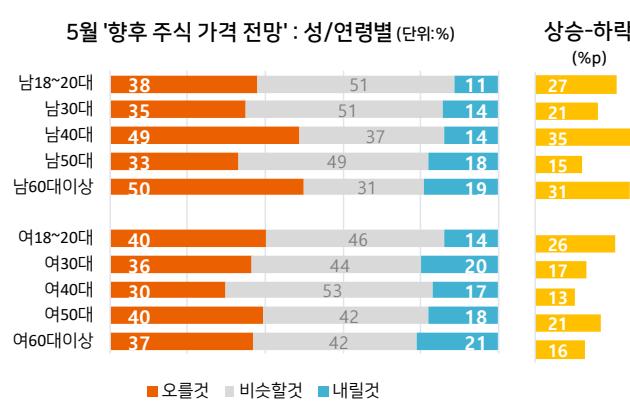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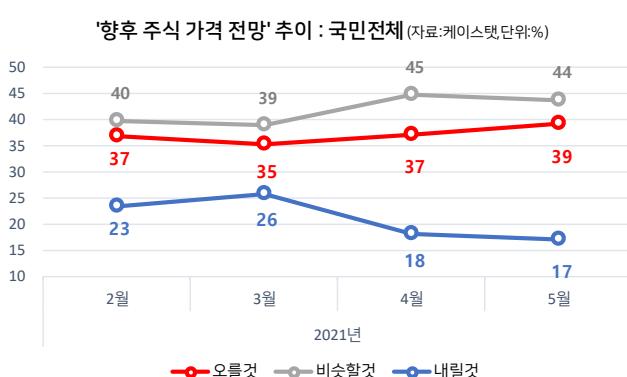
-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'지금보다 오를 것'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함
  - '지금보다 오를 것'이라는 응답이 57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지금과 비슷할 것' 30%, '지금보다 내릴 것' 13% 순으로 응답함
- 모든 계층에서 '차이'(오를 것 – 내릴 것)가 플러스를 기록해,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계층과 무관하게 같은 의견을 보임
- '차이'가 플러스를 기록한 계층 중 특히 높은 계층은 △남자 2030세대, 남자 60대이상 △여자 2030세대 △충청, TK △보수층 △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△개인이익증시층 등임
-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△여자 5060세대 △호남, PK △진보층 △사회이익증시층 등임



- Kstat Point**
- ☒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
  - ☒ 특히 아파트 가격의 경우 5개월 연속 매달 1%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, 국민여론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 (가격 상승 통계자료, 한국부동산원)
  - ☒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국민여론처럼 하락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
: 여권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뚜렷하고,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

## ▣ 주식 가격 전망 : '지금보다 오를 것' 39%로 소폭 증가

- 향후 주식 가격 전망은 4월에 비해 '지금보다 오를 것'이라는 의견이 소폭 증가함
  - '지금보다 오를 것'은 39%로 2%p 상승했고, '지금과 비슷할 것'(44%)과 '지금보다 내릴 것'(17%)은 각각 1%p 하락함
- '오를 것'에서 '내릴 것'을 뺀 '차이'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했으며, 특히 플러스 수치가 높은 계층은 △남자 40대, 남자 60대이상 △진보층 △사회이익중시층 등임
- '차이'의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△남자 50대 △여자 40대 △충청, PK △보수층 등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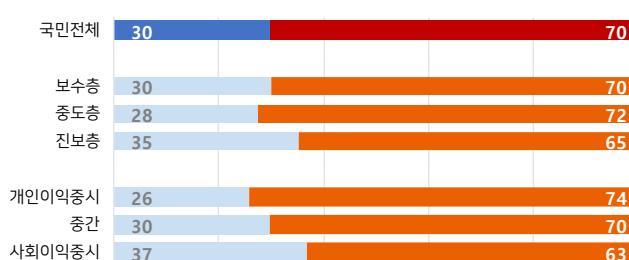
- 재테크 열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재테크 대상으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것으로 보임  
: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'지금보다 하락할 것'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
- 올해 들어 5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 규모는 50조 9,836억 원에 달함  
: 이는 네달 반 만에 작년 연간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주식시장 열풍의 강도를 알 수 있음
- 한편, 가상자산(비트코인 등) 가격 급등으로 증시를 떠났던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스피 시장 순매수 규모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
: 이에 따라 주가는 하락하기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, 주식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## ▶ 5월 특별지표 : 한국인 '불안 의식' 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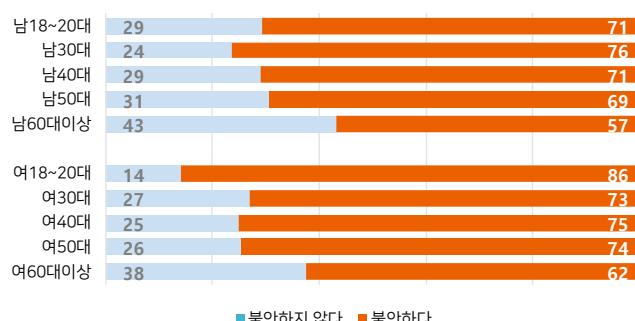
### □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: '불안하다' 70%

-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“선생님께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세요?”라는 질문에 ‘불안하지 않다’ 30% vs ‘불안하다’ 70%로 조사됨
- 계층별로 살펴보더라도 모든 계층에서 ‘불안하다’는 응답이 우세해, 삶과 미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공통 감정으로 보임
- ‘불안하다’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개인이익중시층 △남자 30대 △여자 2050세대 △충청권 △고졸이하, 대학재학 △블루칼라, 학생, 은퇴.무직자 △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
- ‘불안하다’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△진보층 △사회이익중시층 △남자 60대이상 △여자 60대이상 △호남 △대학원재학 이상 △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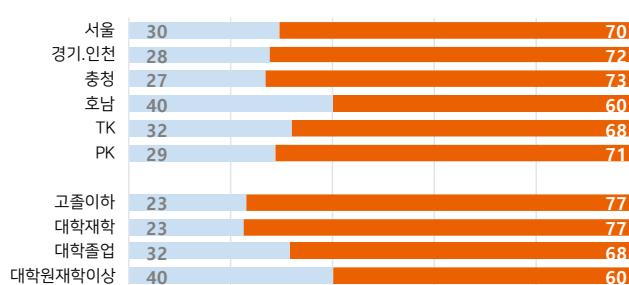
삶,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: 국민전체,이념별,이익중시별  
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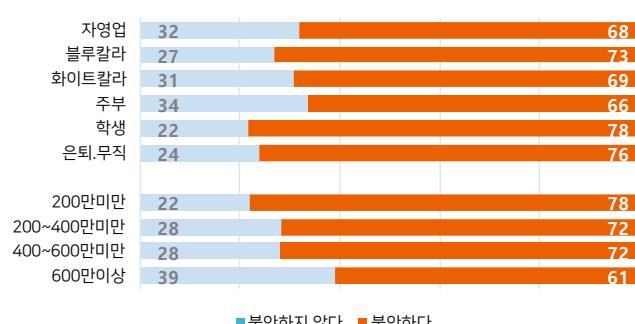
삶,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: 성/연령별 (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삶,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: 지역별,학력별 (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삶,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: 직업별,소득별 (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#### Kstat Point

-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모든 계층에서 동일한 정서임
  - : 앞서 살펴본 ‘재테크’ 열풍은 이러한 불안감의 반영으로 분석됨
- 또한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보다 여성의 높고, 학력이 낮을수록, 소득이 낮을수록 강한 특징을 나타냄
  - : ‘사회적 약자’로 불리는 계층에서 불안감이 강한 것으로, 다분히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
  - : 즉, 남성 중심사회이자 고학력, 고소득층에 유리한 사회구조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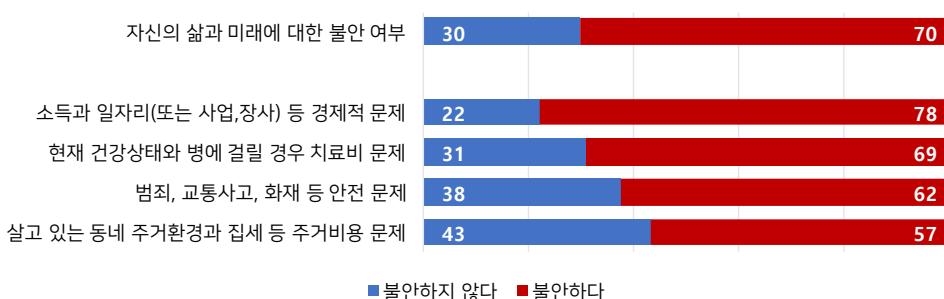
## ▣ 삶 영역별 불안감, '경제적 문제' 가장 높아

-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,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함
  - OECD의 경우 총 11가지 영역, 24개 요소를 제안하고 있음(BLI : 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 지표)
  - 이러한 삶의 요소가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은 '불안감'을 느끼게 됨
- 특히 현대 국가들이 개인(즉, 국민)의 영속적인 삶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원 또는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삶의 영역은 '경제', '건강', '주거', '안전' 등 4가지 영역임



- 이러한 4가지 삶의 영역별로 불안 여부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'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'를 가장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됨 ('불안하다', 78%)
- 다음으로 불안감이 높은 영역은 '현재 건강상태와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문제'(69%), '범죄, 교통사고, 화재 등 안전 문제'(62%), '살고 있는 동네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'(57%) 순으로 나타남

전반적 삶 불안 여부와 삶의 영역별 불안 여부 : 국민전체  
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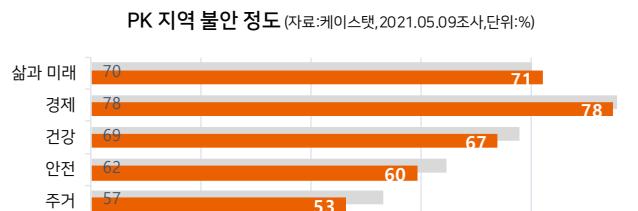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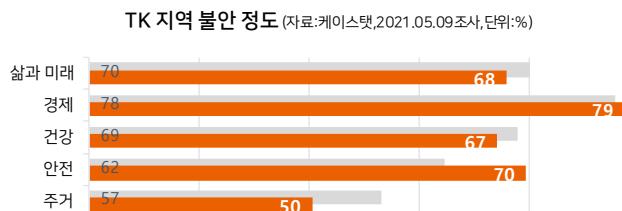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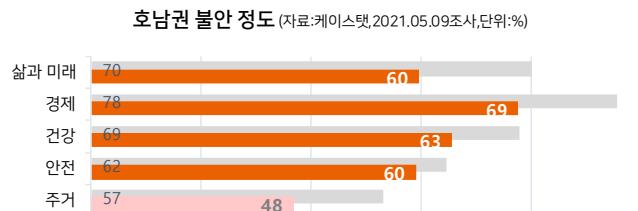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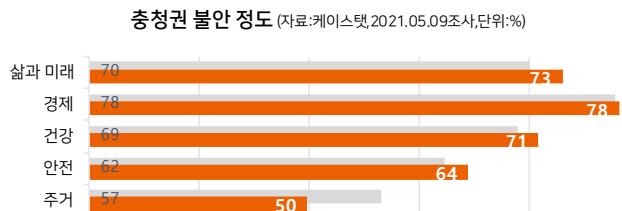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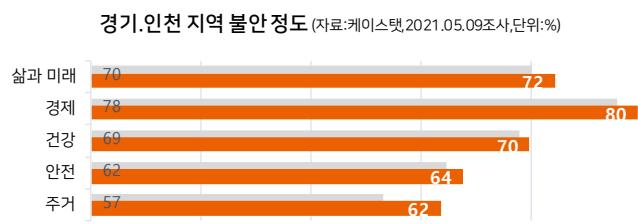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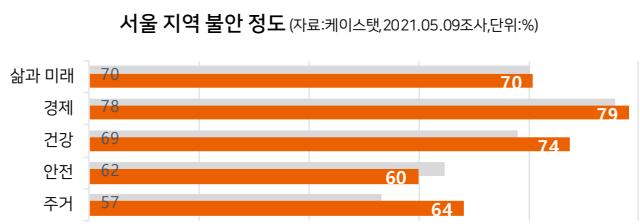


### Kstat Point

- 경제적 문제는 개개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 요인인데도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은, 그만큼 우리 국민의 기초적인 삶의 토대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의미임
- 또한 최근 '부동산' 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지만, 경제적 문제에 비해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주목됨

## ▣ 수도권, 모든 영역에서 '불안감' 높아

- 불안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.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불안감이 국민전체에 비해 높음
  - 서울의 경우 안전 불안감만 국민전체 보다 낮고, 그외 모든 영역에서 국민전체 보다 높은 불안감을 기록함  
\*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수치가 국민전체 불안감임
  - 경기.인천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전체 보다 불안감이 높음
- 국민전체에 비해 불안감이 낮은 지역은 호남권임
  - 호남권은 삶과 미래, 경제, 건강, 안전, 주거 등 모든 면에서 국민전체 보다 낮은 불안감을 기록함
  - 특히 주거의 경우 불안감이 48%로 '불안하지 않다'는 의견이 더 높음
- 충청권, TK, PK 지역은 국민 전체와 비슷한 불안감을 나타냄
  - 충청권의 경우 주거 불안감이 50%로, '불안하지 않다'는 의견도 50%로 팽팽함
  - TK지역은 안전 불안감이 국민전체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고, 주거 불안감은 50%로 낮은 수준임
  - PK지역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보다 약간 낮은 불안감을 보임



### Kstat Point

-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일자리 등 기회요인이 많기 때문임
  - : 그러나 정작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역설적임
  - : 이는 수도권에 기회요인이 많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, 주거비용 등 지출요인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
  - : 특히, 주거 불안감의 경우 수도권은 60%대를 기록하고 있지만, 지역은 50% 이하 또는 50%대에 그침
- 호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불안감이 낮아,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됨

## ▣ 여자 18~20대 불안감, 특히 높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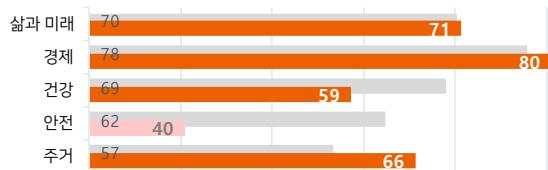
- 성/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안감이 높음

- 모든 면에서 불안감이 가장 높은 성/연령대는 여자 18~20대이고,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가장 낮은 성/연령대는 남자 60대이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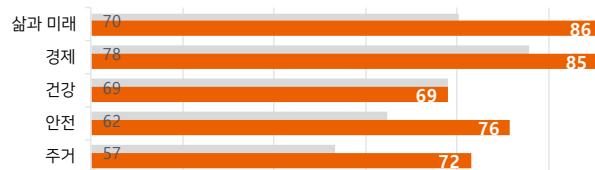
- 특히 여성의 안전 불안감이 높고, 남성은 국민전체 보다 낮은 불안감을 보임

- 특히 남자 18~20대의 안전 불안감은 40%로, ‘불안하지 않다’는 의견이 60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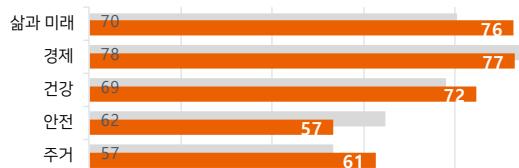
남자 18~20대 불안 정도 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여자 18~20대 불안 정도 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남자 30대 불안 정도 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여자 30대 불안 정도 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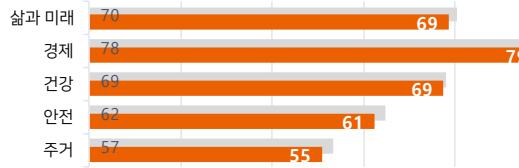
여자 30대 불안 정도 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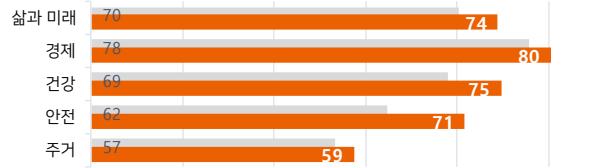
여자 40대 불안 정도 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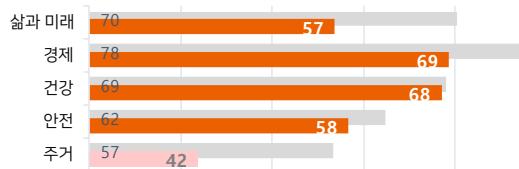
남자 50대 불안 정도 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여자 50대 불안 정도 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남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여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(자료:케이스탯,2021.05.09조사,단위:%)



### Kstat Point

- 경제 불안감은 남성도 높지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, 이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비롯해 출산 후 경력단절 등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됨
- 또한 안전에 대한 여성층의 불안감은 범죄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, 강력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임



<http://www.kstat.co.kr>  
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 
admin@kstat.co.kr ■ 전화 \_ 02\_6188\_6000

**케이스탯 리포트**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
**케이스탯 리포트**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
**케이스탯 리포트**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
**케이스탯 리포트**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
**케이스탯 리포트**는 매월 2,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
**케이스탯 리포트**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 [report@kstat.co.kr](mailto: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### [케이스탯 리포트 28호] 발간 안내

28호는 『'공분'에 대한 국민의식 심층 분석』  
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(목요일)에 발간됩니다.

